

LG전자, 창원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1차 준공식

전체 공정 디지털 전환 구현... 지능형 자율공장 닷 올렸다

냉장고 등 3개 라인 생산 본격시작
조립·검사·포장 등 자동화율 높여
빅데이터 기반 통합 모니터링 도입
모듈러 디자인 통해 공정도 단순화
완공 뎀 에너지 효율 30%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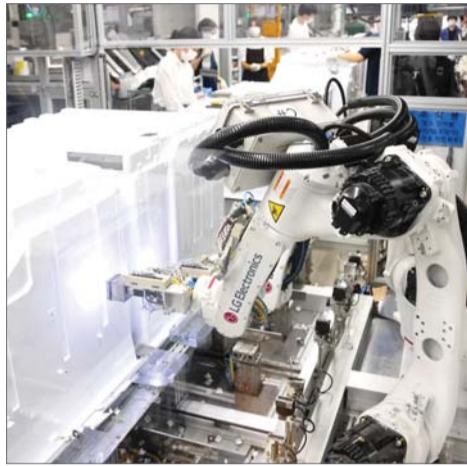
LG전자가 생활가전 사업 핵심 생산
기지 창원사업장의 이름을 'LG스마트
파크'로 변경하고 지능형 자율공장 체
제에 시동을 건다.

LG전자는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 1차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
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봉석 LG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
장 부사장을 비롯해 하병필 경남 도지
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손무곤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
했다.

◆통합생산동 1단계 가동...냉장고 등 3개 라인 생산 시작

LG전자는 총 8000억원 투자를 계획
하며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기존 창원1
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공장으 전환
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년 간 약 4800억
원을 투자해 이번 통합생산동 1단계 가
동에 들어갔다.

LG전자에 따르면 개별 건물에 분산
됐던 제품별 생산라인이 하나의 생산동
에 통합됐다. 이번 1차 준공을 통해 냉



창원 LG스마트파크는 생산 및 물류 공정에 지능형 자동화율 크게 높였다. /LG전자



LG전자는 경남 창원시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의 1차 준공식을 16일 진행했다. 왼쪽 3번째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하병필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권봉석 LG전자 사장, 배상호 LG전자 노동조합위원장, 배두용 LG전자 CFO 부사장. /LG전자

장고, 초프리미엄 'LG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의 생산이 시작됐다.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2024년까지 통합생산동과 참고동 등 연면적 33만6000㎡ 규모 2개동 6개 라인을 갖춘 자율형 지능공장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LG스마트파크, 생산·물류 공정 '지능형 자동화' 크게 높여

LG스마트파크 신축 통합생산동은 조립·검사·포장 등 주방가전 전체 생산 공정의 자동화율을 크게 높였다.

신축 통합생산동에는 설비·부품·제품 등 생산 프로세스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러닝을 통한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가전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신축 통합생산동의 물류 체계도 개선된다.

LG전자는 신축 통합생산동에 지능형 무인창고, 고공 컨베이어 같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체물류 기반 자동공급 시스템 등을 통해 부품 물류 자동화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의 '5G전용망 기반 물류로봇'은 공장 내에서 안정적인 통신 연결로 가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 운반하게 된다.

LG전자는 이 같은 첨단 설비와 기술이 적용된 통합생산동이 최종 완공되면 현재 최대 200만대 수준인 창원1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이 3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LG전자는 '모듈러 디자인'을 통한 최적화 생산 설비로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 신제품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자신했다.

모듈러 디자인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솔루션을 묶어 표준화된 모듈로 설계하고 원하는 모듈을 블록처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형 지능공장 구축...국가·지역 경제 기여 물론 환경보호도 실천

LG전자는 LG스마트파크 구축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보호 실천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창원사업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전의 국내 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LG스마트파크 구축을 계기로 전 세계 LG전자 생산 공장에 창원을 롤모델로 한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LG전자는 창원 LG스마트파크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생활가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G전자에 따르면 H&A사업본부 협력사 가운데 스타리온성철, 신성텔타테크, 오성사 등 창원 지역 11개 주요 협력사의 종업원 수는 41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통합생산동 1차 준공까지는 22개 지역 건설업체, 누적 16만명이 참여했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창원을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대 기자 cd1@metroseoul.co.kr

'행동·전진·가속' 금호석화, ESG 비전 공개

'트리플 A' 9대 중점 영역 정의
기획·실행·모니터링 선순환 마련

금호석유화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전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은 16일 'Let's Act, Advance, and Accelerate for ESG!'라는 회사의 ESG 비전을 발표했다. 금호석화의 ESG 비전인 'Let's Act, Advance, and Accelerate for ESG!'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ESG를 위해 행동하고, 전진하고, 가속하자'라는 의미다.

금호석유화학이 선포한 ESG 비전의 핵심 전략은 '트리플 A'(Act, Advance, Accelerate)로 요약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Act, Advance, Accelerate 각 전략 방향에 대해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체화한 '9대 중점 영역'을 정의하고 ESG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금호석화는 ESG 관련 리스크와 비즈니스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면서 ESG 경영의 기획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ESG 경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ESG 전반의 핵심 공시 지표를 선정했으며, 2050 탄소 중립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당사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호석유화학은 ESG 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추석 앞두고 협력사 상생 강화

KT, 2542억 납품대금 조기 지급 마무리

KT 알파 등 6개 계열사 동참
예정일보다 최대 15일 앞당겨

KT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에 나선다.

KT는 2542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오는 17일까지 조기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캠페인에는 KT 알파, KT DS, KT SAT, KT

커머스, KT 엔지니어링, 이니텍 등 6개 계열사도 약 547억 규모로 동참한다. KT는 중소파트너사 대상 630억원, 전국 대리점 대상으로 총 1365억원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예정 지급일 보다 최대 15일까지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업계 최대 규모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혁 기자

LGU+, 납품대금 300억 현금 조기 지급

중소 협력사 자금 유동성 확보
전국 대리점 단기대여금도 제공

LG유플러스가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추석 전 협력사들에게 납품대금 3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올해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3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

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동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에 단기대여금 80억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저리로 자금을 대어해주는 '동반성장 펀드'와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음성인식 탑재 차량용 AI '누구 오토' 출시

SKT, 볼보 신형 XC60에 최초 탑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차의 기능을 한층 끌어올린다.

SK텔레콤은 운전 중 길찾기·음악 재생은 물론, 차량 기능 제어까지 가능한 자동차 전용 AI 플랫폼 '누구 오토(NU GU auto)'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SKT의 '누구 오토'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티맵모빌리티가 14일 함께 공개한 '통합형 SKT인포테인먼트(통합 IVI)'의 주요 기능으로 탑재돼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신형 XC60에 적용된 통합 IVI는 누구 오토·TMAP·플로가 차량에 기본 설치돼, 운전자가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SKT는 지난해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기술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누구 오토를 포함한 통합 IVI를 개발해왔으며, 이번 신형 XC60에 최초로 탑재했다.

운전자는 누구 오토를 통해 통합 IV



자동차 전용 AI 플랫폼 '누구 오토'

I의 기능인 ▲티맵의 길찾기/상호검색 ▲플로의 음악 재생 ▲에어컨이나 시트 열선을 조작하는 차량 기능 제어 ▲문자/전화 송수신 ▲차내 라디오/블루투스 등을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다.

/강준혁 기자